

## 대한민국 생존의 안전장치는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전술핵, 핵잠수함, 신형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金正은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요구에 화답이나 하듯 일각에서는 훈련 연기를 제기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북한 비핵화의 해결 방식, 대북정책의 공조, 한미 안보현안의 접근법 차이 등은 한미 동맹의 파열음으로 비춰지고 있는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평시 북한의 도발억제, 유사시 전쟁 승리 등 사활적 이익을 지켜내는 린치핀이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70년은 주변 강대국에 의한 침략의 역사였던 반면,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하였던 지난 70년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안정되고 번영된 역사였다.

하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 '한미 대북접근법 이견', '시기에 집착한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국가 안위가 달려있는 안보 현안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미국과는 '주적', 대한민국과는 연합훈련 중단·첨단무기도입 중지 등 조건부 관계 개선을 제기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고 있다. 안보현안으로 인한 한미동맹 파열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하나. 북한은 핵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은 분명한 '주적'이다. 견고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북한은 전술핵, 핵추진 잠수함, 신형미사일, 초음속무기, 정밀정찰무기 등으로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 등은 훈련을 명분삼아 한 해 동안 수십 차례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있다.

하나.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지휘소 연습과 대규모 실병기동훈련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강력한 군사동맹체 그 자체로써 핵 우산 제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미측의 전략자산, 전시 증원전력 전개 등은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안된다. 북한 비핵화 명분으로 축소·폐지되었던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을 즉각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한 군대는 국민들이 부여한 높은 사기, 지휘관에 의한 엄정한 기강 그리고 강한 훈련으로 완성된다.

군의 사기는 국민이 신뢰할 때 높아지는 것이고 군 기강 확립과 전투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은 지휘관의 고유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2021년 2월22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

